

세월호, 연극으로 계속된다

‘해화동1번지’ 7기 동인
내달 4일부터 기획공연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이 4년8개월 만에 옮겨졌다. 그러나 4월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아픔을 기억하는 무대는 잇따른다. 대학로의 젊은 연출가 모임인 ‘해화동1번지’ 7기 동인은 4월4일부터 7월7일까지 연극실업실 ‘해화동 1번지에서 기획 초청공연 ‘2019 세월호-제자리’ 참여 작품들을 선보인다.



‘해화동1번지’ 7기 동인.

실업극의 산실로 통하는 해화동1번지 동인은 그간 굵직한 연출가들을 배출해 왔다. 지난해 말 7기 동인으로 김기일(엘리펀트룸), 송정안(프로젝트그룹쌈시웃), 신재(0set 프로젝트), 윤혜숙(래빗홀씨어터), 이재민(갯프로젝트), 임성현(콩팍프로젝트)이 뽑혔다. 이들은 이번 기획공연을 통해 세월호로 상징되는 여러 참사의 아픔과 트라우마 그리고 희망을 조심스럽게 살펴본다. 첫 작품은 갯프로젝트 이재민 연출의 ‘겨울의 눈빛’(4월 4~14일)이다. 무려한 세대의 초상을 그린 작가 박술피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콩팍프로젝트의 임성현 연출은 황정은 작가의 동명 연작 소설집 중 ‘그’와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를 엮은 ‘디디의 우산’(4월 18~28일)을 올린다. 누락되고 소외되는 사람들의 혁명 가능성을 톺아본다. 엘리펀트룸의 김기일 연출은 ‘아웃 오브 사이트’(5월 2~12일)를 공연한다. 광범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을 겪은 뒤 벗어지는 풍경을 그린다. 0set프로젝트의 신재 연출은 ‘바람 없이’(5월

23일~6월2일)을 선보인다.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고봉’이 원작이다. 고통을 직접 겪는 당사자들의 곁에 있는 연대 활동가에 대한 이야기다. 프로젝트그룹 쌈시웃의 송정안 연출은 ‘어딘가에, 어떤 사람’(6월 6~16일)을 공연한다. 극작가 고재귀씨가 글을 썼다. 생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기억’의 자리에 ‘망각’을 들여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 작품이다. 래빗홀씨어터의 윤혜숙 연출은 테스 게리첸 ‘파견 의사’가 원작인 ‘너 시너(The Sinner)’ 6월 20~30일)를 무대에 올린다. 고요한 수녀원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추악한 진실을 밝혀낸다. 마지막으로 ‘4·16 가족단 노란리본’은 ‘장기자랑’(7월 4~7일)을 공연한다. 4·16가족단노란리본은 세월호 유가족이 몽친 극단으로 2015년 10월 연극치유모임으로 출발했다. 2016년 3월 정식 창단 이후 ‘그와 그녀의

웃장’,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등을 공연했다. 이번 작품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아영이가 수학여행의 첫 장기자랑을 준비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다. 이번 기획 공연을 주최·주관하는 해화동1번지 7기 동인은 부제로 ‘제자리’를 앞세운 것에 관해 “세월호 참사로 누군가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고 그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이어졌지만 진상규명을 향한 길은 여전히 제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죽음 혹은 내뿜김이 개인의 책임, 고통, 상처가 아니며 그렇게 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다”는 것이다. “‘세월호’는 더욱 적극적으로 말하고 상기해야 하는 현재형 질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뉴스

공예디자인 스타상품개발 공모... 내달 22일까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2019 공예디자인 스타상품개발 공모’를 개최한다. 신청은 18일부터 4월 22일까지로, 실물 심사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가에 한해 이루어진다. 전통 공예와 현대 디자인의 융합을 표현할 수 있는 공예품으로, 전 연령대의 공예디자인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정 작가에게는 상품개발 지원금과 컨설팅, 유통, 전시 참가 등의 지원이 이어진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하는 ‘공예디자인 스타 상품개발 공모’는 그동안 총 90명의 창의적인 작가를 발굴했다. KCDF 관계자는 “상품화 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출판작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어, 실제로 참여한 작가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odf.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뉴스



정읍시 정읍사국악원과 정읍농악전수관에서 국악연수생을 모집한다.

“전통 국악의 흥과 멋을 배워보세요”

정읍사국악원 · 정읍농악전수회관, 연수생 모집... 이달 29일까지

정읍시 정읍사국악원과 정읍농악전수관에서 국악연수생을 모집한다. 시는 우리 국악의 멋과 가락을 시민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9일까지 제55기 국악연수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좌에는 각종 전국대회 수상 이력이 있는 수준 높은 교수와 강사진이 포진한다. 정읍사국악원에서는 소리와 가야금, 무용, 대금(단소) 등을, 정읍농악전수회관에서는 장구와 농악, 태평소 등을 배울 수 있다. 교육은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교육 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야간 1시간씩이다. 수강료는 기초반 기준 학생은 월 1만원, 일반은 월 1만5천원이다. 유진섭 시장은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예술의 도시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된다”며 “전통 국악의 맥을 잇는 특별한 기회를 시민들도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강 신청은 정읍사국악원(☎539-6413) 또는 정읍농악전수회관(☎539-642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문화예술사업소는 “시민 나이가 전 국민의 흥을 돋을 시립국악단과 시립농악단의 국악 예능인들이 준비되어 있다”며 “각종 행사에서 우리 전통의 흥을 느끼고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 군민설명회 열려... “62%설립 찬성... 수준높은 문화서비스 기대”

고창군이 ‘폭격있는 역사문화 관광’ 정책을 이끌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지난 15일 고창군립도서관에서 고창문화원 등 지역문화예술관광단체 대표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 방향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고창군은 9월께 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라 설립 타당성 용역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그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분석 ▲재단 설립 필요성 ▲운영방식과 대상사업 범위 등이 설명됐다. 앞서 지난달 군민 2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62.5%가 재단설립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서비스를 기대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날 지역 문화계 관계자들은 “재단이 기획·지원하는 기관이 되어야 관리·감독하



고창군이 지난 15일 고창군립도서관에서 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 방향 설명회를 가졌다.

는 기관이 되어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고창군 관계자는 “문화관광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정책을 기획·수행할 전담기구로 군민

의 문화향유 확대와 지역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